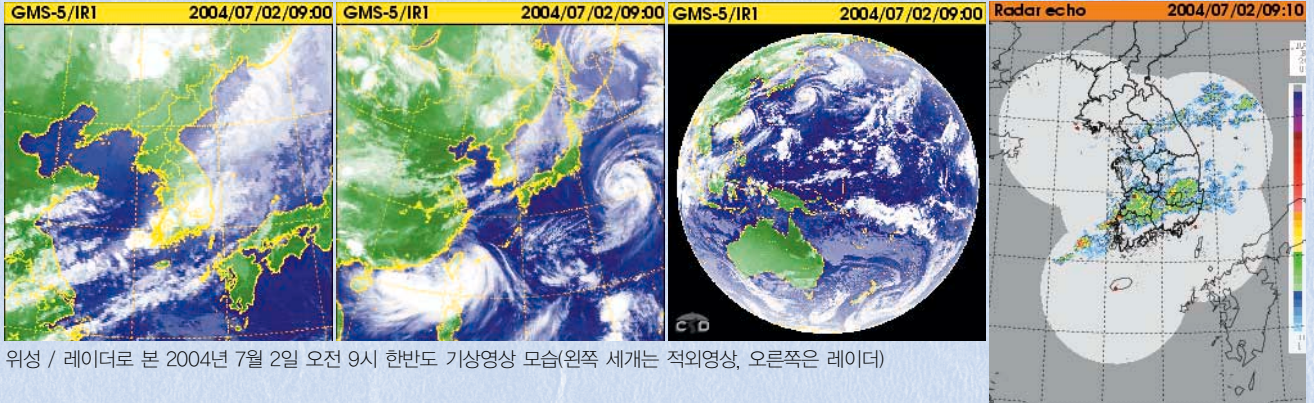


# 과학지식 없는 언론보도 아쉽다

글\_ 김성균 전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부 교수 kimsk@chonnam.ac.kr



위성 / 레이더로 본 2004년 7월 2일 오전 9시 한반도 기상영상 모습(왼쪽 세개는 적외영상, 오른쪽은 레이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의 일기예보를 보면, 지도 위에 지역별로 날씨를 맑음, 흐림, 비 등으로 기호화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십수 년 전의 신문, 텔레비전에서는 고기압, 저기압 등의 등압선도가 그려진 일기도가 지도위에 겹쳐 그려지고, 지역별 날씨가 해설로 나타났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일기도를 보고 해설을 읽는 것보다는 단순화된 기호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전달 효과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일기도를 보고 장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일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일기도로부터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가는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에서 취급되고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식이 무시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단순화된 표현으로 정보 전달을 쉽게 하자는 의도도 있겠지만, 신

문이나 방송 관련자들의 과학에 대한 무지일 수도 있고, 또는 일반 대중의 상식 수준을 낮춰 본 결과일 수도 있다.

다른 예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매스컴 보도를 보면 지진의 크기와 피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제대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지진 자체의 크기, 즉 에너지를 수치화한 것이 '규모(리히터 규모)' 이고, 지진에 의한 진동 및 피해를 등급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진도'이다. 따라서 한 지진에 대한 규모는 하나의 값을 가지며,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5월 29일 울진 동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2이고, 울진에서의 진도는 5(불안정한 물체가 전도될 정도의 진동), 서울에서의 진도는 2(건물의 상층이나 민감한 사람만 느낄 정도의 지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러나 규모와 진도는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외신의 번역에서는 'Richter

Scale(리히터 규모)'을 리히터 지진계로 잘못 표현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기사를 취급하는 담당자들과 수차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대부분 이공계와 무관한 전공자였고,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이공계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자는 운동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성공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매스컴이 앞장서서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과학지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흥미본위의 사건기사보다는 과학과 관련된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취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과 졸업 후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